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총여학생회 폐지, 그 너머를 상상하라

일시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306호

주최 |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여성학회

주관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후원 | 서울시 성평등기금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총여학생회 폐지, 그 너머를 상상하라>

프로그램 내용	
개회사: 신경아(한국여성학회장) 축사: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전체 사회: 김상애(2019 한국여성학회 여름캠프 기획단 포럼팀장)	
여는 발표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 - 교과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예담(이화여자대학교)	3
라운드 테이블: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사회: 김홍미리(서울여자대학교)	
발표 1) 부산대 총여학생회의 탄생과 자채종결까지 임봉(부산지역 대학여성운동 역사 기록 프로젝트팀 브릿지) 발표 2) 총여학생회 이후 전환에 대한 고민 -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동희(동글)(페미니즘 교육 플랫폼 비두) 발표 3) '학생회'로서 총여와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비전 황주영(서울시립대학교) 발표 4)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 총여학생회 재건 투쟁 과정과 분석 윤김진서(성균관대학교) 발표 5) 대학에는 언제나 싸우는 여자들이 있었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 기획자)	12 24 30 42 49
토론: 미현(이화여자대학교) 정다울(중앙대학교)	
폐회사: 허주영(2019 한국여성학회 여름캠프 기획단장)	

흔들리는 의미: 어떻게 합의된 언어를 만들 것인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재개편 총투표 요구 서명안(2018)은 '총여학생회가 성평등, 성소수자관련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남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총여학생회 재개편에 대한 첫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위 말은 "여성주의 운동이 '성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왜 '여성'만을 이야기/대표 하는가?"라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의 세련된 판본 같은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이는 여성주의가 지닌 긴장이기도 하다. 여성주의 운동과 언어에는 성별이분법의 해체, '여성'도 '인간'이라는 주장과 어떤 필요에 따라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시스젠더'라는 용어의 대중화 되면서 '여성'을 고정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덧붙여 진다.

총여학생회는 구조상 이런 딜레마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총여학생회는 전무후무하게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별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총여학생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학생 운동'의 일환이자 좀더 넓은 범위에서 '학생운동'의 요구로서 수용되었지만, 부산대 총여학생회의 흐름이 보여주듯이,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총여학생회는 딜레마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아마 재정과 황주영이 지적한 것처럼, 뿔뿔리 대의기구(하부조직)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 아닌 '애매한 위치'와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에 당위성으로 통용되었다면 총여학생회의 부재 기간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황주영의 글 많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회’로서 총여와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비전"은 역사로 회자되는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탈각되었다는 것을 문제제기 하면서,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이 환기되되는 과정에서 목소리의 탈각, 누락이 반복되지는 않는지를 비판한다. '영페미' 세대를 경유하지 않았던 본인이 90년대에 대해 말을 엮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코멘트는 생각한다. 다만총여학생회를 구성할때 우리가 너무 대문자 여성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지역과 위치에 따른 특수성을 말하면서 시공간에서 총여학생회의 의의를 전달해야 하지 않았을까? 학내 여성주의 운동을 위한 거점이나 자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와 합의의 근거들을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서 "부산대 총여학생회의 탄생부터 자체 종결까지의 과정"은 한 대학 내 여성주의운동이 어떤 분절점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주의 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시대적인 흐름과 조금씩 결을 같이하는 운동의 역사를 복원해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반위에 서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살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다만, 부산이라는 지역과 국립대라는 특성이 부산의 여학생운동-여성주의운동에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탈정치화'에는 바닥이 없다.

성공회대 인권위원회에 관한 글("총여학생회 이후 전환에 대한 고민")은 여성주의와 맞닿거나 여성주의를 우회하는 운동에 대한 논의를 풀어낸다. 비두의 발제문이 인상깊은 것은 여성주의를 경유하는 인권위원회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이전에 총여학생회가 마주했던 질문과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문제해결 기구이기를 요구받고, 또 문제해결에 대한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정당성이 없다고)고 비판(?)받는 것은 이전의 총여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떠올리게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대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인가?

성공회대의 인권위원회는 여성주의를 포괄하되 생물학적 성에 갇히지 않는 시도로 만든 것이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총여 폐지를 원하는 학생들이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기도 하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진보의 언어라고 여겨지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보편인권'을 위한 것으로 쉽게 승인되기도 한다. 인권침해나 폭력을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편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인권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작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나는 최근에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탈정치화의 양상과 정치에 대한 감각들이 변화해 왔는데 '탈정치화', '정치에 관심 없음'이라는 논의로 이러한 변화들이 포착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심증을 지니고 있다(자기반성). 대학을 다니기 10년 전부터 운동권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니 20대 남성은 이슈와 관계없이 안티페미니스트 스탠스를 띤다고 말하게 되면, 당장 협상하고 마주해야 하는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변화들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이어진다. '이건 안돼'라는 선들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김현영의 논의의 연장에서, 허용되고 있는 탈정치의 지점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비판할 수 있는 언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결국 페미니즘의 언어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윤김진서의 발제의 한 장면을 빌리자면 학생회장이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총투표를 주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장면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토대를 같이 만들어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선행하는 것을 우리의 고민으로 담아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학내의 다양한 운동들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페미니즘 정치'를 놓지 않기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낀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트워크 단체를 꾸리기도 했다. 학내의 혹은 개별 대학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역사를 정리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너무 반갑고도 고무적이다. “어떻게 대학에서 페미니스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할 것인가?” 라는 재정의 질문을 가슴속에 품은 채 지속가능하면서도 발전하는 대학의 페미니즘 운동을 고민하는 작업들에 용원을 보낸다

더불어서 “우리가 모색하는 페미니즘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결국 진보라는 것은 개별 성폭력 사건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이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폭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의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협상의 기술과 언어들에 대한 고민, 가닿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 기꺼히 함께하고 싶다.

정다울

먼저, 너무나도 좋은 글들을 작성해주신 발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발제문을 받았을 때에만 해도 토론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지만, 발제문들을 꼼꼼히 읽어 보면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글들도 있었고,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점들도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누군가의 의견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더 좋은 논쟁과 이를 통한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은 의견의 차이와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2018년 한 해 동안 연말이 일어난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폐지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왜 총여가 폐지되어야만 했는가?"("그들은 왜 총여를 폐지시켜야만 했는가?")이다. 미투(Me Too)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 시점에 총여가 폐지되었다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발제자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학생회의 성격 변화, 사회 전반의 보수화·신자유주의화 역시 일련의 총여 폐지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1. '우리'의 공동체에 침입한 '페미니스트'들

총여의 폐지,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학내의 전반적인 백래시를 공동체의 부재라는 틀에서 사유하는 것 역시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는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 공동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은 경계를 긋는 작업이다. 이는 곧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와 반대되는 '타자'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와 '타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범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구성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타자'가 있어야 함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를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와 반대되는 '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컨대, '동성애자'라는 '타자'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성애자'라는 '우리'가 만들어지며, '동양'이 만들어짐으로써 '서양'이 만들어지고, '흑인'이 만들어짐으로써 '백인'이 만들어진다(Hall, 1996; 사이드, 2015[1978]; 파농, 2014[1952]; 모한티, 2005[2003]).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구성되고, '타자'를 배척하면서 '우리'는 단단해진다.

이를 고려했을 때, 2018년 총여 폐지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부재했다기보다 계속해서 공동체가 '단단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는 연구를 위해 현재까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의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과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총여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살

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총여 폐지를 통해 '우리' 학교, '우리' 선배들이 일궈낸 민주주의, '우리' 학교의 상징, '우리' 학교의 명예, '우리' 학교의 입결을 지키자는 언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호의 대상들은 '그들', 즉 총여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당하거나 손상을 입은 것으로 그려진다. "총여가 있어서 '학교 망신'"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거칠 게나마 요약해볼 수 있겠다. 이처럼 하나로 상상되는 '우리'는 총여와 페미니스트라는 '타자'를 배척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만들어지고, 더욱 단단해진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안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는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다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평등'과 '안전'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 왜 모두의 학생회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학생회들에서 '예비군 간식 지원사업'을 위해 이미 학생회비를 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요컨대 우리가 세심하게 포착해내야 할 것은 '어디에 공동체의 경계를 긋는가'이다. 경계를 긋는 작업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2.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 달리기' 위하여: 시·공간을 가로질러 꿰매어 나가기

경계를 긋는 작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충분히 유효하다. 페미니즘 운동을 단일한 것으로 묘사하는("전체인 남 하는") 작업은 늘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을 낳는다. 이러한 구분은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이기도 하다. 운동은 여성이 처한 상황을 재현하여 보여주고, 이를 통한 정치적 의제화는 누구를 대표(representation)할 것인가와 깊게 연관된다. 황주영 님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영페미니스트'라 불리는 1990년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평가(재현)에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계급차이에 대한 맹목"이 깔려 있었으며 이는 주변부를 적절히 재현/대표하지 못한다. 부산지역 대학여성운동 역사복원 프로젝트 팀 <브릿지(BRIDGE)>의 문제의식 역시 비슷한 궤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관심거리의 축에도 들지 못했을"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여성 "전체"를 다시 사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계속해서 해온 작업이기도 하다.

나는 이처럼 적절히 재현되지도, 대표되지도 못하는 주변부를 '빈 공간(void)'이라 부르겠다.²⁾ "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데에 실패한 결과, 이 '빈 공간'에 놓인 이들은 성의 문제도, 계급의 문제도 제대로 의제화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이 놓인 자리가 '빈 공간'인 이유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페미니즘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페미니즘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알려야만 존속될 수 있으며", "여성문제가 존재한다는 객관성"을 증명해내야 하는 조건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속적으로 페미니즘을 '단일한', '통합된' 것으로 재현/대표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헤게모니한 페미니즘과 이것이 누락한 '빈 공간'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빈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현/대표의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러한 '빈 공간'에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든 완벽한 '헤게모니의 환상'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헤게모니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운동의 "지속력은 [중심부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 펼쳐] 일견 분열이나 힘의 분산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온다."

1) 본 토론회는 서울시립대와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의 발제문들에 대한 토론회이며, 내용 중 일부는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포함된 것임을 미리 밝히둔다.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만큼, 본 토론회에 대한 코멘트와 지적, 의견 교환 역시 기꺼이 그리고 겸허히 환영한다.

2) 이는 페미니스트 법학자이자 교차성 이론을 제시한 킴벌리 크렌쇼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Crenshaw, 1991).

이러한 '빈 공간'들, 파열들을 시·공간을 가로질러 꿰매어내는 작업은 다양한 차이들을 가진 여성들 사이의 연대의 가능성을 연다. 여기서 연대란 무엇인가를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연대는 서로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서로의 차이를 삭제하고 우리는 '여성'이니까 '자매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헤게모니의 환상이다(모한티, 2005 참고). 중심부로 재현되지 못한 다양한 차이들을 기록하고, 복원해내는 작업이 이러한 연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 총여 페지 이후, 대안을 모색하기

총여의 페지 과정에서, 총여의 필요성을 기각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다양한 대안 기구들이 제시되었다. 총여는 여학생만을 위한 기구이니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대변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재정 님이 지적한 대로, 얼마 전 중앙대 총학생회가 성평등위원회의 FOC(Feminism Organization in Chung-Ang University)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사건'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유용하겠다. 이는 분명 "총여학생회 페지 이후 대안적인 기구를 마련해도 언제든 존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나는 여기에 또 다른 분석을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총여 페지론자들이 총여를 폐지하고 성평등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을 설립하자고 주장했을 때, 이들은 첫째,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도 고려하자는 주장(즉,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을 펼치는 동시에, 둘째,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도 고려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문제들'은 각기 분리된 사안으로 사유된다. 즉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 장애인으로서 겪는 문제, 성소수자로서 겪는 문제 등은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재한 채 켜켜이 쌓이고, 뭉뚱그려진 '소수자들'의 문제는 성평등위원회, 인권위원회가 한꺼번에 모아서 다룰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 요컨대 억압을 더하기 모델(additive model)으로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억압의 축들이 복잡하게 뒤얽리며 교차한 채로 작동하는 현실을 가려버릴 뿐 아니라, 목적에 따라 특정한 (눈엣가시 같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속아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총여가 아닌 성평위나 인권위에서도 여성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가령, 중앙대 성평위의 FOC 사업)은 손쉽게 '문제화'될 수 있다. 이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와 무관한 것, 심지어는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권의 문제가 젠더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권의 문제는 젠더의 문제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 모든 억압과 지배의 축들은 뒤얽혀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축을 떼어내어 분리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을 낳는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라고 해서 좁은 범위의 의제를 다루고, '인권'위원회라고 해서 더 넓은 범위의 의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억압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문제이며, '빈 공간'들을 사유하는(혹은 사유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이다.

4. 나가며

총여의 페지는 쓴 경험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었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다. 대학은 어떤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현재 학생 사회를 '탈정치화'라는 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더듬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페미니즘 운동을 만든다'는 말을 덧붙이며 힘든 투쟁에 (자기위로를 포함한) 심심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

[참고문헌]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문현아 역. 서울: 여이연.
 사이드, 에드워드. (2015).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파농, 프란츠. (2014).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역. 파주: 문학동네.
 Crenshaw, Kimberle.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 1241-1299.
 Hall, S. (1996). Ethnicity: Identity and Difference. in G. Eley, R. G. Suny, & L. Freedman (ed.),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